

주제발표 2

충남 천주교 성지 관광자원화 방안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남 천주교성지 관광자원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인 배

1. 종교관광의 개념과 현황

1) 종교관광의 정의

- 종교관광이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 동기 부여된 여행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오늘날 순례여행과 종교관광은 예전에 비해 다른 유형의 관광과 병행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종교관광은 문화관광의 세분화된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학자들이 관광의 분류를 통해 종교관광을 문화관광에 포함함
- 관광의 분류에 나타난 종교관광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됨

<표 1> 관광의 분류에 나타난 종교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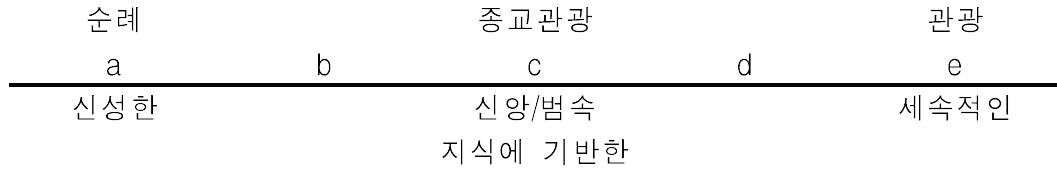
학 자	기 준	내 용
Wehab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락이나 여가관광 ■ 문화관광 ■ 보건관광 ■ 스포츠관광 ■ 집회관광
Mariotti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학관광 ■ 스포츠관광 ■ 교화적관광 ■ 종교적관광 ■ 예술관광 ■ 상업상관광 ■ 보건상관광
Bernecker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적관광 ■ 문화적관광 ■ 사회적관광 ■ 체육관광 ■ 정치적관광 ■ 경제적관광
Rinschede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관광 ■ 문화관광 ■ 종교적관광 ■ 사회적관광 ■ 스포츠관광 ■ 경제적관광 ■ 정치적관광

자료 : 도경록(2000), 종교관광참여자의 만족, 석사학위논문, p14.

- 이상에서와 같이 종교관광을 정의함에 있어 여행자의 동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종교관광자로 정의되는 순례자와 휴가자로 정의되는 관광자는 여행의 동기를 구성함에 있어서 양극성에 위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본 원고는 충청남도(2006), ‘충청남도 종교자원의 잠재력과 활용방안 연구’를 요약 정리함.

- 이와 관련하여 Adler를 포함하는 많은 수의 학자들은 순례와 관광이 여행의 동기라는 연속선상의 양극점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 a. 경건한 순례; b. 순례>관광; c. 순례=관광;
d. 순례<관광; e. 세속적인 관광

[그림 1] 순례-관광의 연속체

- 종교관광은 [그림 1]과 같이 극단적인 신성함이나 세속적이기보다는 그 사이에 위치하며 사회적인 가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중립적이며 이면적인 모습을 가짐
- 따라서 종교관광 분야도 여러 분야, 특히 역사문화관광부문과 상충되는 면이 많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면면들을 살펴볼 때 오늘날의 종교관광은 휴가나 문화관광, 또는 지역에 따라서는 정치적 관광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임
- 실제로 복합적인 관광사례는 로마와 같이 종교적 부분과 문화적 부분이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더욱 확연함

2) 종교관광의 대상

- 성지와 의례적 행사들은 관광매력물 중에서도 고전적인 것에 속하는 것들로서 성지, 사원, 교회, 종교적 축제 등은 방문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을 수 있는 복합적인 매력물임
- 종교관광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개념화되어 질 수 있는데 ① 종교적인 동기에 의해서 여행하게 되는 순례성지, ② 종교적 의미와 함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함께 지닌 종교관광 매력물, ③ 종교와 관련된 축제 등임¹⁾
- 종교적인 성지는 순례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대중관광의 목적지로도 선호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옛것에 대한 향수, 종교적 관심, 도시생활로부터 탈출 등의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²⁾

1) Mary Lee Nolan And Sidney Nolan, "Religious Site as Tourism Attractions in Europ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92. 19: p69.

-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종교관광지는 단순히 구식건물 가운데 사찰과 교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사찰 및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순교한 인물을 기념하고 기리는 성지 및 유적지 등을 포함함³⁾
- 아울러 종교적으로 독특한 의식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즉, 연등제와 같은 종교적 이벤트 등도 포함해야 할 것임

3) 종교관광의 특성

- Rinschede 따르면, 종교관광의 특성은 참가자수, 교통수단, 계절성, 사회구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첫째, 참가자의 수에 있어, 종교관광의 경우 개별여행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둘째, 교통수단에 따른 특성을 보면, 초기에는 도로나 배, 19세기 후반이후에는 철도, 오늘날에는 버스와 자동차, 항공기 등을 주로 이용함
- 셋째, 계절성에 따른 특성을 보면, 종교성지의 경우 일년 내내 방문할 수 있지만, 종교행사나, 기념일, 성지의 위치, 농부들의 작업스케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분석되고 차별화되어 지는데, 종교의 성격에 따라 종교관광 참여자의 성별분포는 뚜렷이 구별됨
- 이외에도 종교관광에서는 성별에 대한 차이뿐 아니라 연령에 의한 차이도 보이고 있음
- 실례로 1984년 Munich의 천주교 모임에 참석자중, 74.1%는 25세 이하의 젊은 관광객였고, 25세에서 60세까지의 관광객은 17.4%, 60세 이상은 겨우 3%에 그치고 있음⁴⁾
- 국내에서 천주교의 성지순례의 경우도⁵⁾ 남자보다 여자가 많으며 30세~40세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순례목적과 동기면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신앙목적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이 낮을수록 신앙과 관광을 겸하는 겸목적 관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는 실제로 종교관광의 유형을 구별함에 있어 이러한 특징이 잘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음

2) Eiki, H. "Pilgrimage in East Asia" in *The Encyclopedia of Religions*, M. East, ed, New York : Macillan 11: pp 349-35.

3) 한병선, 『문화관광지리』, 서울, 삼광출판사, 1997.

4) Gisbert Rinschede, "Form of Religious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92. Vol 19.

5) 신중성, 한국의 성지분포와 순례형태에 관한 연구-천주교 성지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제18회 지리교육학회, 1991.

- 다만, 종교의 성격에 따른 특성 분류에 있어, 우리나라 종교의 경우에 있어서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특별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불교사찰의 경우, 오히려 다양한 계층과 성별, 연령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충남의 천주교 종교자원 현황과 활용의 과제

1) 충남 천주교 관련 자원 현황

- 충남의 천주교는 내포지역을 중심으로 전래 초기부터 한국천주교회의 태동과 과급을 이뤘던 ‘신앙의 못자리’역할을 함
- 충남지역은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고향인 당진 솔피, 순교성지인 해미, 갈매못, 홍주읍성, 황새바위, 다락골,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권상연의 고향인 진산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고한 정통성과 자원을 갖추고 있음
- 구체적으로 역사성 있는 건축물, 인물, 순교지 등 지역 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성지를 보유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천주교 신자들의 성지 순례시 반드시 거쳐가는 등 지역 내부는 물론 외부의 방문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다만, 현재까지는 신자 위주의 피정 프로그램, 성지 도보 코스로 활용이 대부분이며 성지의 성격 훼손의 우려로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표 2> 충남 천주교 관련 자원 현황

구분		유형	주요내용
성당	합덕성당	교회건축물	1920년 신고딕양식에 의해 건축
	공세리성당	교회건축물	1921년 고딕양식에 의해 건축
성지	갈매못성지	순교성지	1886년 500여명이 군령으로 처형된 순교지
	해미성지	순교성지	국내 최대의 순교지(1790-1866)
	솔피성지	김대건 신부 생가터	국내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 탄생지
	성거산성지	선교거점지	선교사들의 은둔 선교전초기지
기타	수리치골	교우촌	천주교 박해시대의 교우촌
	다락골무덤	순교자묘	최경환 성인과 최양업 신부 탄생지
	홍주읍성	교통, 체신, 행정의 중심지	내포의 사도 이존창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교우들이 있던 곳
	여사울	이존창 탄생지	‘내포의 사도’ 이존창의 탄생지
	황새바위	공개 처형지	천주교 박해시대의 순교자 공개처형지

자료 : 충청남도(2006), 충청남도 종교자원의 잠재력과 활용방안 연구.



[그림 2] 천주교자원 분포도

2) 충남 천주교 관련 여행패키지 상품

- 천주교 여행패키지로는 라파엘 여행사에서 충남에 있는 전체 성지에 대해 코스별로 나누어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을 내세우고 있음.
- 여행스케치에서는 안면도 바닷가와 공세리 성당을 포함하는 여행패키지로 하여 주변의 관광지를 경유하는 상품을 운영하였음.

3) 충남 천주교 종교자원 시설 및 활용의 과제

- 천주교의 경우 순교지를 중심으로 성지 조성의 형태로 시설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용객은 대부분 신도 중심으로 피정 프로그램 참가자와 성지 도보코스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음.

<표 3> 충남의 천주교 관광상품

여행사명	목적지	일정 및 홈페이지 주소	가격	기타
라파엘 여행사	천주교 성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 7코스 - 공세리, 솔뫼, 합덕성당, 신라공소, 여사울, 해미, 성거산 성지 • 국내 - 8코스 - 해미, 홍성, 다락골 줄무덤, 수리치골, 최경환 생가터, 갈매못 • 국내 - 9코스 - 공주 황새바위, 부여 지식리, 다락골 줄무덤, 갈매못 • 홈페이지 : http://www.raphaeltour.co.kr 	7, 8 코스 33,000원 9 코스 37,000원	당일
여행 스케치	공세리 성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출발 → 안면도 꽃지해변 → 중식 → 공세리 성당 → 피나클랜드 → 서울도착 • 홈페이지 : http://www.toursketch.co.kr 	회원 27,000원 비회원 28,000원 어린이 27,000원	당일

주 : 본 현황은 2006년에 여행사에서 운영된 상품임.

- 반면 일반인들에게는 성지의 성격 훼손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천주교 성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인들에게는 활성화되지 않음
- 이는 상품이 단순 성지 탐방의 형태로 장소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운영 인력면에서도 방문객들을 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은 아직 미비한 상태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확보와 자료 마련이 필요함

3. 천주교 자원의 활용방향과 사업대상지 제안

1) 천주교 자원의 활용방향

- 충남의 종교자원을 활용한 종교관광의 대상사업은 종교별로 구분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은 개별 종교자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변 자원과 연계가 필요한 종교자원은 연계관광코스로 대상사업을 제시하였음

<표 4> 천주교 자원 가치와 활용방향

구분	대상지	활용가치 검토 내용	활용방향
천주교	합덕성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교구 모본당 1890년 설립된 (충청남도 1호성당)건축물 (1925년 완공, 드비즈 신부). 충청남도문화재 145호 ▪ 잘 보존된 근대건축의 성당 건축물, 40여명의 성직자와 70여명의 수도자를 배출한 성소의 요람 ▪ 내포지역 도보성지순례 코스의 중심지로 각종 지역축제와 연계개발 추진 가능 	성지순례 명소 및 관광코스 개발
	갈매못 성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66년 병인박해 시 다블뤼 안 안토니오 주교 외 500여명의 유 무명 순교자의 치명지 ▪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안에 위치한 바닷가 순교성지임 ▪ 전시관, 숙소 건립(1999), 충청남도과 보령시 성지홍보 실시, 주차장 아스콘 포장(2006, 보령시), 주차장 관리 원활 	성지순례 명소 및 관광코스 개발
	해미읍성 해미순교 성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해 초기부터 병인박해(1790~1866)까지 3천 여명에 이르는 천주교도들이 순교한 곳으로 알려진 최대 순교지 ▪ 성안 감옥, 호야나무, 순교성지의 자리개돌, 형구, 해미순교탑(1975), 무명순교자 묘소(1995 이장), 순교자 기념 성소(2003), 생매장 순교자의 유해 참배실(2003), 매월 첫주 금요일 저녁 순교선열 현양 제등행렬 실시 ▪ 해미역사체험축제 실시 및 다수 관광객 방문, 인근 오학리농촌체험마을 입지 ▪ 해미성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후 관통도로 폐쇄와 신도로 개설로 성지 주변 환경정비 실시 	성지순례 명소 및 관광코스 개발
	공세리 성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7년 드비즈 신부에 의해 본당과 사제관이 지어지고, 1921년 다시 부임하여 새로 건축한 성당 ▪ 충남에서 가장 먼저 건축된 성당건축물 	성지순례 명소 및 관광코스 개발
	솔외 성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탄생지로 1998년 7월 16일 충청남도 지방문화재 기념물로 지정 ▪ 김대건 신부 생가터에 건립된 성지 기념물, 피정시설, 생가터 재정비 ▪ 내포지역에 위치한 이 지역은 합덕성당, 해미읍성 신리 공소 공세리 성당 등 주변 성지와의 거리가 가까움 	성지순례 명소 및 관광코스 개발
	성거산 성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학동은 병인박해 전부터 있었던 교우촌이고, 1866년 병인박해시 소학당 출신인 최천여 베드로 등이 공주 감영에서 순교하였음. 순교자의 무덤과 교우촌 신자의 줄 무덤이 사적지로 조성 ▪ 산악지역이라 일반인에게는 자연환경 그대로의 등산로로 활용되고 있음 ▪ 진천 배티, 삼박골 등 교우촌의 중심지, 선교사들의 은둔 선교전초기지 	성지순례 명소 및 관광코스 개발
	수리치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주교 박해시대 교우촌의 하나임. 1846년 페레올 고 주교에 의해 조선에서는 처음 성모성심회라는 신심단체가 구성되어 공주지방의 신앙형성에 큰 공헌 ▪ 인근지역에 마곡사와 공주시내에 백제문화유적지가 있어 다수의 관광객 경유하는 지역임 	성지순례 명소 및 관광코스 개발
	다락골 줄무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91년 신해박해 와중에서도 이곳에 천주교가 전래 되었으며 1866년 홍주감영(공주)에서 순교한 교우의 시신을 몰래 안장한 순교 묘역. 1982년 무명순교자 묘비 제막식을 시작으로 성역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이 곳은 무명순교자 묘역과 선교에 열성을 다하다 과로로 순교한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와 그의 부친 최경환 성인의 탄생지임 	성지순례 명소 및 관광코스 개발

구분	대상지	활용가치 검토 내용	활용방향
천주교	홍주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16년 홍주지방은 성모성탄구역으로 지정. 1866년과 그 후 2년동안 이곳에서 천주교인들이 순교 과거 교통과 통신, 행정의 중심지이자 국방의 요새지 한용운 생가지, 김좌진장군 생가터, 용봉산 등 다수의 관광지가 인접하여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 	성지순례 명소 및 관광코스 개발
	황새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새바위는 천주교인들을 공개 처형한 곳으로 황새들이 많이 서식하여 붙여진 이름 공주시내에 입지하여 공산성, 무령왕릉, 곰나루 관광지, 국립공주박물관이 바로 인접해 있어 다수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짐 	성지순례 명소 및 관광코스 개발
	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천주교 초창기부터 마무리 박해때까지 신앙의 요람지로서 많은 신자와 순교자들을 끊임없이 배출해낸 ‘조선의 카타콤바’ 인접하여 솔뫼성지, 함덕성당 등이 천주교 유적지가 있음 	성지순례 명소 및 관광코스 개발
	여사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포의 사도라 불리는 이존창(루도비교)이 태어난 곳으로 그가 천주교를 받아들여 전교활동을 펼친 곳 주변에 예산 수덕사와 윤봉길의사를 모신 총의사, 추사고택, 도고온천 등 관광지가 많고, 다수 관광객이 방문함 	성지순례 명소 및 관광코스 개발

2) 천주교 자원의 활용 대상사업 제안

- 충남의 종교자원을 활용한 종교관광의 대상사업은 종교별로 구분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은 개별 종교자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변 자원과 연계가 필요한 종교자원은 연계관광코스로 대상사업을 제시하였음
- 대상사업의 위치와 범위는 자원의 입지특성에 맞추어 주변지역과 연계 관광코스개발이 용이하도록 이용권역을 구분하였음
- 사업의 성격은 자원별 특화가 가능한 사업과 연계관광코스 개발로 하였으며, 이용시장에 따라서 국제, 국내, 지역별 수준으로 나누었음

<표 5> 천주교 자원 주요사업대상 제안

대상지		위치 및 범위	사업성격
천주교	솔뫼성지	내포문화권	성지정비 및 연계관광코스 개발
	갈매뫼 성지	내포문화권	박물관 건립 및 연계관광코스 개발
	해미성지	내포문화권	세계성지순례 코스 개발
	성지별 연계관광코스	전체 권역별	성지 연계관광코스 개발

3) 충남의 종교자원과 연계한 천주교 자원의 개발구상

- 종교자원을 활용한 종교관광 대상사업의 전략구상은 종교별 자원의 입지와 연계성에 따라 기독교관광권, 무속관광권, 불교관광권, 천주교관광권 등으로 권역을 설정하였음
- 또한, 종교자원별 분포특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각 종교별로 연결성과 주변의 관광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루트를 구성하였음



[그림 3] 종교자원 활용 관광권 개발구상도

4. 충남 천주교 성지 관광자원화 방안

1) 접근방향

(1) 천주교의 역사성

- 충청남도는 서북부 내포지역을 중심으로 전래 초기부터 한국천주교회의 태동과 파급을 이뤘던 ‘신앙의 못자리’였음
- 한국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고향인 당진 솔피, 최대 순교성지인 서산 해미읍성, 보령 갈매못, 홍성 홍주읍성, 공주 황새바위, 청양 다락골,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권상연의 고향인 금산 진산 등 신앙이 태동하고 시련을 받고 성장한 천주교의 본 고장다운 확고한 정통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역사성 있는 건축물, 인물, 순교지 등 지역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주제를 지닌 성지를 보유하고 있음
- 특히, 홍성, 예산, 당진, 서산, 아산, 보령, 청양을 포함하는 내포지역은 해양과 내륙이 만나며 생동하는 서민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지역임

(2) 지역공동체로서의 천주교

- 충청남도 지역의 천주교회는 외래의 도입에 의한 전래보다는 지역 내에서 주민의 갈망에 의한 자연발생적으로 태동한 특성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발생 배경은 천주교가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공동체, 지역 문화와 정서를 형성하고 정형화 시키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현재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교우촌의 경우에도 개간, 경작 등 신앙을 떠나 경제적 공동체로서 이루어진 흔적을 찾을 수 있음

(3)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유리한 천주교

- 충청남도는 육상운송이 발달하기 이전인 해상운송 시대부터 영호남과 수도권을 이어주는 길목 역할을 하였으며 경부선 철도와 호남선의 분기지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내륙은 물론 해안 지역의 연결 지점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음
- 이러한 지리적 장점과 다양한 자원은 충청지역은 물론 영호남, 수도권 천주교 신자들이 성지 순례시 반드시 거쳐가는 길목이 되어 지역 내부는 물론 외부의 방문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충남의 천주교 성지는 천주교 대전교구에 속해 있어 대전이라는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함께 수도권과 호남권에 접해있어 유리한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음

2) 개발구상

(1) 목표

"천주교 성지의 재발견, 새로운 정신문화의 요람"

- 신자들에게는 새롭게 신앙의 견고함을 더해 주는 동기를 부여하며, 비신자들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정신문화의 수혜와 정신적 휴식처를 제공하는 범 종교적 성지로 재발견

(2) 개발방향

① 역사 문화적 가치 부여 - 성지 본모습의 복원 발굴과 정형화

- 성지 등 천주교 관련 자원의 적극적인 개방에 앞서 본래의 모습 발굴과 복원 및 역사적 사실의 재규명을 통한 정형화된 원형 정립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유·무형의 자원을 역사 문화의 견고한 장으로 부각

② 한국 근대사에서 천주교 역할의 새로운 이해 - 단편의 조합

- 조선초 말 근대화의 기로에서 천주교 도입의 시대적 필연성과 내·외적인 배경, 근대화의 창구이자 주역이었던 충청남도 내포의 역할 재조명

③ 지역의 호응을 기반으로 세계화 된 품격 및 수준의 유지

-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수준의 문화와 접목시키며 종교가 가지는 미션인 앞선 문화와 예술적 가치 부여 적극 실현

(3) 개발전략

① 신자와 비신자로 이원화 접근

- 종교의 이해 및 존엄성 유지와 선교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전략을 우선하고 신자와 비신자로 구별하여 천주교 자원을 활용함

② 지역 커뮤니티 형성 - 지역과 지역민에게 기여

- 지역의 이해와 호응을 받으며, 지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 로 지역

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종교적 가치관에 중점

③ 융합된 문화 창출 -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가 결합된 형태

- 천주교 자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 결합한 형태로의 융합된 문화 창출 기대

④ 청소년층을 겨냥한 미래지향적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교육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청소년층을 겨냥한 미래지향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우선 추진함

⑤ 천주교 관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적극 활용

- 문화관광해설사가 역사유적지인 불교유적지와 천주교 성지에도 배치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적극 활용토록 함.

3) 천주교 성지별 관광자원화 방안

(1) 생가지 재정비 및 순교지 발굴

① 현황

■ 솔외성지

-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이며 내포신앙의 중심지인 솔외성지는 "신앙의 못자리"로서 순례객들에게 박해시대 신앙공동체의 숨결과 이 시대의 순교신심을 불러일으킴
- 1996년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사업으로 김 신부 생가 복원과 박물관 겸 경당을 건축하기로 하여, 생가 복원은 2004년, 2005년에 기념관이 완공됨
- 1998년 7월 16일 충청남도는 성 김대건 신부 생가터를 충남지방문화재기념물로 지정
- 솔외 피정의 집은 현재 130여 명이 숙박할 수 있고, 개인 단체 피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짜여있어 전국의 신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음



[그림 4]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관

■ 해미성지

- 해미는 일찍이 천주교가 전파된 내포 지방의 여러 고을 가운데서 유일하게 군영이 있던 군사 요충지임
- 1418년에 병영이 설치되었고, 1491년에 석성이 완공된 해미진영(사적 116호)은 1790년대로부터 백여 년 동안 천주교신자 3천 명이 국사범으로 처결된 곳임
- 1790년대에 순교한 라우렌시오를 비롯한 순교자들은 1870년대에 까지 수십 명이 이름을 남겨놓고 있지만 그 외 수천 명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 무명 순교자임
- 해미의 땅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치명한 최대의 순교지임



[그림 5] 해미성지

■ 갈매못

- 충남 보령군 오천면 영보리 바닷가 갈매못은 1866년 3월 30일 병인박해 때 체포된 파리외방전교회 성 다블뤼 안 주교, 성 오매트로 오신부, 성 위앵 민 신부, 배론 신학당의 집주인이던 전교 회장이던 성 장주기 요셉, 연풍 태생으로 다블뤼 주교를 도와 성교회 서적 번역 및 교회사 집대성에 큰 공헌을 했던 성 황석두 루가 등 다섯 분과 5백여 명의 이름 모를 교우들이 순교한 곳



성 안토니오 주교

성 오매트르 신부

성 민 루가 위앵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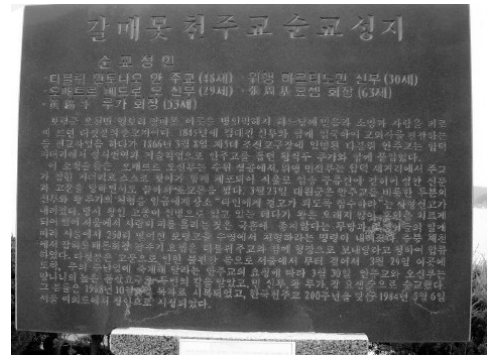
성 황석두 루가

성 장주기 요셉

[그림 6] 갈매못 순교자 5인

- 갈매못이 순교 성지로 눈길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1975년 9월 대전교구 대천 본당 주임이었던 정웅택 요한 신부가 순교 당시의 위치를 확인하고 순교복자 기념비를 세우면서부터임

- 그 후 1985년 9월 다섯 분의 순교 성인 기념비와 야외 제단이 세워졌으며(이곳에서 순교한 5명 모두 1984년 5월 6일 성인 반열에 올랐음), 교구에서는 기념 성당과 사제관, 수녀원을 신축하였음.
- ‘보령 갈매못 천주교 순교지’는 2013년 2월 12일 충청남도 기념물 188호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었음.



[그림 7] 갈매못 순교 기념비

② 개발방향

■ 순교자의 이동 경로 도보 순례코스화

- 충청남도의 천주교 순교와 전래코스를 관광코스화하여 도보로 순례 루트로 개발

■ 성지의 기념공원화

- 성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반인들이 찾는 성지 관광지로 개발

③ 기본 구상

- 성지 등 천주교 관련 자원의 적극적인 개방에 앞서 본래 모습 발굴과 복원, 역사적 사실의 재규명을 통한 정형화된 원형 정립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유·무형의 자원을 역사·문화의 한 장으로 첨부

④ 사업내용

① 솔뫼성지

■ 김대건신부 생가 재정비

- 가옥터의 지표 발굴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입증과 조선 후기 지방 양반 가옥의 유형과 규모, 등 전체 복원 (2004년에는 40평 중 19.8평을 우선 복원함)



[그림 8] 김대건신부 생가

■ 솔뫼성지 정문의 재건립

- 성지내 건축물의 규모, 품격과 조화되는 예술품 수준의 정문 건립으로, 김대건 신부 생가 확장이 실행되면 현재 정문의 위치도 바뀌어야 함

■ 내포문화센터 기능

- 조선의 근대화 과정과 천주교의 역할, 내포 문화를 파급시키는 기능 수행
- 전문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 성지에서 추천, 충남도 교육 및 성지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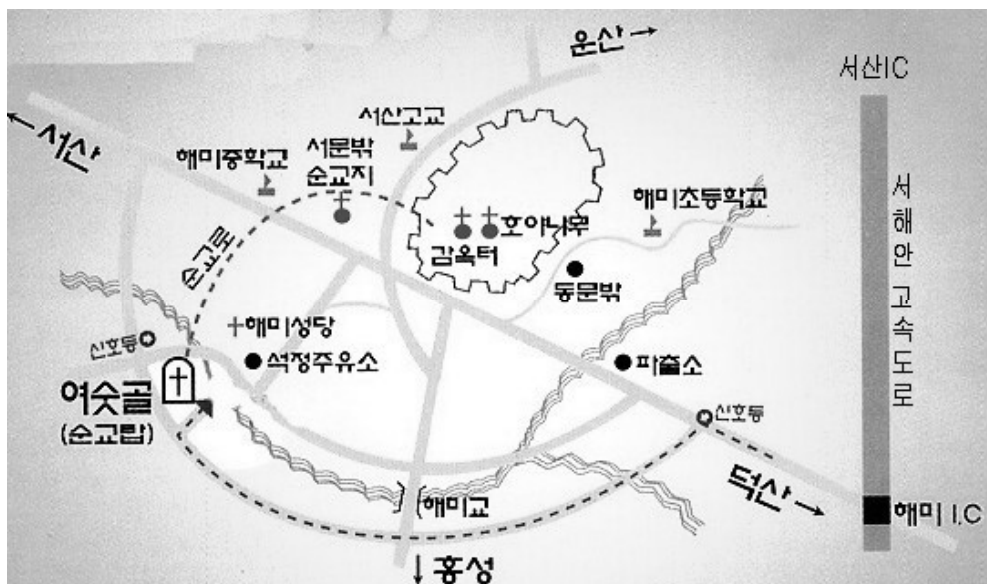
2 해미성지

■ 해미읍성의 성지 측면 부각

- 해미읍성 중심의 병영측면의 강조로 순교성지로서의 면모가 상대적으로 미흡

■ 산재된 순교성지의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

- 산재된 무명순교자의 매장터 발굴 : 원형의 복원
- 도보 성지순례의 거점화, 개신교신자, 일반인들을 위한 공간 마련
- 해미순교지가 속해 있는 블록 전체의 매입으로 체계적인 활용 기반
- 한티고개 성역화 : 덕산과 해미사이의 고개
- 서문밖 성지에서 생매장 성지 구간의 도보 순례 코스 구비



[그림 9] 해미성지 주요 유적

③ 갈매못성지

■ 순교 현장의 복원

- 현재 복토되어 땅속에 묻힌 순교처형장인 모래사장의 원형을 복원

■ 성의 제구 전시관 건립

- 이곳에서 처형당한 다블뤼 안 안토니오 주교가 사제 서품후 첫 미사때 입었던 중백의를 토대로 성의 제구를 설명하는 전시관 건립

■ 지역주민에게 기여하는 기능

- 해양관광지라는 이미지에 가려 갈매못 성지와 역사 문화자원인 오천성, 도미부인사당 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문화체험 코스로 우선 선택 : 지역이 가진 관광유적을 토대로 지역의 가치 재발견
- 지역민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 하절기 외 연중 작은 음악회 등 문화행사 개최
- 오천항의 지역주민 상권과 경쟁할 소지가 있는 사업의 자체 : 성지순례객이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유도

⑤ 사업 내역

<표 6> 생가지 재정비 및 순교지 발굴 사업내역

구분	규모(m ²)	내용
합계		
솔뫼성지	1식	• 생가터 발굴조사(현 복원생가터 주변 3,306m ²) • 생가증축(현 복원생가를 토대로 부속건물 증축)
	1식	• 박공형태의 조각품 14면이 이어진 정문 조성
	24m ²	• 기념관내 공간을 활용하여 전시공간 마련
해미성지	1식	• 순교자 매장터 발굴(13,200m ²)
	24m ²	• 개신교, 일반인을 위한 조배실 조성
	1식	• 해미순교지가 속한 구역 매입(1만평, 건물 1동)
	1식	• 한티고개 기념조형물(소공원) 조성
갈매못성지	1식	• 순교지(모래사장)의 매입, 원형복원 41,653m ² , 건물 2동
	40m ²	• 성의 제구 전시관 (전시관 건립, 성의 제구 기증 및 구입)
		• 음악회 개최 (연 6회)

⑥ 사업추진계획

①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 각 성지별로 구체적인 투자사업비는 발굴조사 및 시설물 조성은 공공사업으로 지방정부 지원비와 국비에서 충당토록하고 전시물은 교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확보 추진

② 사업추진주체

- 관련사업 추진에서 발굴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어 추진토록하고 사업주체로서 시설을 조성하되 모든 시설의 조성 규모와 디자인은 각 성지에 적합하도록 교단과 협력하여 추진
- 전시물 기증과 구입에 있어서 지역주민 및 교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③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사업은 성지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굴조사 및 기반시설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기념관 조배실 등 기반시설을 정비 및 기념관을 건립토록 함.

<표 7> 생가지 재정비 및 순교지 발굴 사업추진단계

구 분	주요시설	추진방향
1단계	기본계획 및 발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조사 및 원형복원 • 기본계획, 용지확보를 추진
2단계	시설물 조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문조성, 전시공간 마련, 조배실조성, 기념조형물 조성, 전시관 조성
3단계	홍보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회 개최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

(2) 자료관 및 기념관 건립

① 현황

■ 홍주읍성

- 중앙에서 목사와 별도로 부임한 홍주 진영의 영장은 홍주를 비롯하여 그 주변에 있는 17개의 군과 현의 군사권을 관할하였음
- 이 때문에 홍주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순교하게 됨(국사범으로 처리됨)

- 동문 쪽에 있는 진영 아문은 영장이 집무하던 곳이고, 신자들이 끌려와 매를 맞으며 신앙을 증거했던 진영 동헌 앞이 성지로서 보다 더 의미가 있는 장소임
- 진영 동헌이 있던 자리는 옛 홍성우편국 사무실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 한국 통신공사 건물이 있는 자리이고, 감옥이 있었던 현 검찰청 자리, 북문 건너편의 사형장 터와 그 인근의 가매장 및 생매장 터,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을 심문하고 처형했던 진영 동헌 터인 옛 홍성 우편국 사무실 자리와 안회당 앞마당 등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성지가 됨
- 관할 지역의 규모와 지리적 위치로 볼 때 많은 순교자가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홍성군 내의 문서에는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사와 정리가 시급함



안회당 앞에 목사의 동헌 자리 표지



[그림 10] 홍성의 신앙 증거 터



[그림 11] 홍주 아문

■ 신리 공소

- 신리 성지는 충청도 내포 지방으로 조선 천주교 초창기부터 마무리 박해 때까지 신앙의 요람지로서 많은 신자와 순교자들을 끊임없이 배출해 낸 지하 공동체가 있었던 곳
- 이 공동체는 신리 성지를 중심으로 한 거더리, 세거리, 소털, 강계, 양촌 등 주변 마을이었으며, 성지는 지금도 신리란 이름과 함께 남아 있음
- 이곳에서 배교자 이선이의 밀고에 의해 1866년 3월 11일 안 나불뤼 주교가 체포되어 교우들과 치명 순교하면서 교우촌이 완전 파괴되었음
- 1863년 화재로 인하여 한국 천주교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들이 모두 소실되었으며, 현재에도 그 때 불에 탄 서까래, 대들보가 복원된 건물에 남아있음
- 초가였던 이 집은 1954년 성모 성년 기념으로 새 단장을 하였는데 벽, 기둥, 서까래,

대들보, 주춧돌은 원래 집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사용

- 1964년까지도 신리 공소는 20여명 되는 목조 초가집이었으나, 훗날 함석지붕을 새로 이었다가 2003년 10월 복원 작업을 시작하여 2004년 4월 원형대로 초가로 준공식을 가졌음.



[그림 12] 신리성지

② 개발 방향

- 순교성지의 의미 외에 종교적 문화적 지식 정보의 제공
- 근대 종교 지역관련 유물 자료의 수집·발굴 전시

③ 개발구상

- 신자들에게는 새롭게 신앙의 견고함을 더해주는 동기 부여
- 비신자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고품위 문화의 수혜와 정신적 휴식처를 제공하는 범종교적인 기능과 위상

④ 사업내용

① 홍주읍성

■ 홍주읍성 순교성지의 기념관 설립

- 홍주읍성 순교 장소의 대부분이 현 홍성 군청 내 동헌, 객사, 조양문 등 실제 사용하는 건축이기 때문에 순례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음
- 홍주읍성 내에 홍주읍성의 축소 미니어처와 관련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념관과 조배실을 건립 순교 성인과 성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

② 신리공소

■ 교회 출판 기념관

- 신리 성지에서 편집되어 출간된 서적의 진본 또는 사본의 수집, 당시 출판 및 동 시대의 인쇄 기구의 전시

⑤ 사업 내역

<표 8> 자료관 및 기념관 건립 사업내역

구분	규모	내용
합계		
홍주읍성	40m²	• 조배실 및 기념관, 미니어처 등 전시물
신리공소	50m²	• 교회 출판 기념관 (전시관 건립, 전시물 기증 및 구입)

⑥ 사업추진계획

①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 구체적인 투자사업비는 공공사업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원으로 투자하여 추진
- 기존의 안내 및 편의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관광객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설마련

② 사업추진주체

- 관련사업 추진에서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되 시설의 조성 규모와 디자인 등은 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
- 전시물 기증과 구입에 있어서 지역주민 및 교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③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사업은 기본계획 및 용지매입과 기반시설 공사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2~3단계 사업은 기념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전시물 기증 및 구입을 확보
- 정부기관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지원과 안내물 배포,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홍보대상별 적합한 홍보방안 추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

(3) 성지순례 및 문화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① 현황

■ 합덕성당

- 합덕 본당은 내포평야에 복음을 밝힌지 100년이 넘는 한국 교회의 산 증인이 된 유서 깊은 성당임
- 한국 초기 성당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합덕 성당의 모습도 전형적인 신고딕양식이며, 특히 내부의 모습은 전주의 전동성당, 명동성당 등 유서깊은 성당의 모습들과 대부분 비슷한 양식을 띄고 있음
- 서해안에 인접한 합덕과 먼천 지역은 주위에 많은 사적지와 명소들이 분포돼 있음
- 홍성, 해미, 솔피 등이 근접해 있어 이들 중 하나를 연결해 함께 돌아볼 수도 있고 또한 덕산도립공원과, 온양·도고·덕산 온천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도 있어 여름이면 만리포, 몽산포, 대천 등의 해수욕장에는 인파가 붐빔
- 합덕 성당은 성소의 못자리로도 유명한데, 사제 40여명, 수녀, 수사 약 70명 등 많은 성직자를 배출하였으며, 1998년 7월 16일 충청남도는 이 성당을 충남지방문화재로 지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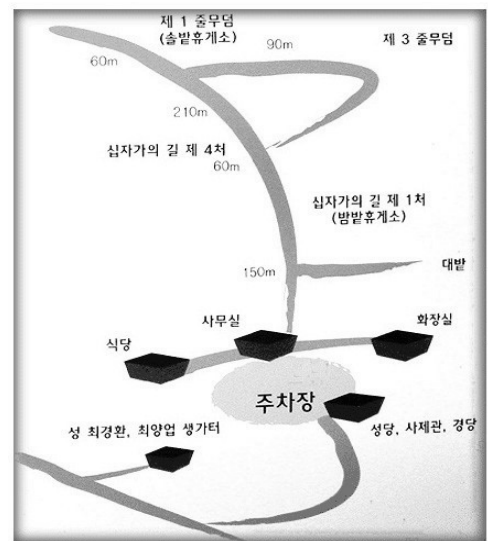
[그림 13] 합덕성당 주변 천주교 성지

■ 청양 다락골 줄무덤 성지

- 다락골 마을 뒤에 줄지어 늘어선 무명순교자의 묘소는, 1866년 병인박해 당시 홍주 감영에서 순교한 교우들의 시신을 엄중한 감시를 뚫고 옮겨 최씨 종산인 이곳에 안장했다고 구전으로 전해짐(혹자는 황새 바위에서 순교한 이들이 묻힌 곳이라고도 하고 또는 동학란 때 죽은 자들의 무덤이라는 이야기도 있음)
- 청양성당에서는 이곳에 무명순교자 묘비를 세우고 1982년 11월 23일 묘비 제막식을 가졌으며, 1986년 2월 16일 줄무덤에서 150년 된 십자가상과 묵주 1점이 출토되었음
- 줄무덤의 총수는 37기인데, 성역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방윤석 베르나르도 신부에 의해 이 마을의 구전과 사료를 수집하여 현지 답사를 계속한 끝에 1981년에 줄무덤이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임을 밝혀냈으며, 편의상 제 1,2,3 줄무덤으로 구분하였음
- 이곳에 제1줄무덤 14기, 2줄무덤 10기, 3줄무덤 13기 이렇게 해서 이곳에 있는 무명 순교자의 무덤 수는 모두 37기임



[그림 14] 줄무덤 순교자비



[그림 15] 청양 다락골 줄무덤 건물 배치

■ 여사울

- 여사울은 내포의 사도라 불리는 이존창 루도비꼬가 태어난 곳이고, 그가 천주교를 받아들여 전교 활동을 펼친 곳임
- 당시 여사울은 청양, 홍주, 홍산, 대흥, 보령 등지에서 서울로 가려면 이곳에서 배를 타고 아산만을 건너야 하는 통행로였음
- 이 마을은 옛부터 부자들이 많이 살아 온통 집들이 기와집 뿐이어서 마치 서울과 비슷하다 하여 ‘如서울’ 이라 불렸던 것이 여사울이라는 지명이 된 유래가 되었다고 함
- 이존창의 생가 터가 있는 여사울은 현재 신례원 본당의 공소가 있으며, 주민의 80퍼센트 이상이 천주교 신자로 구성돼 있는 교우촌임



[그림 16] 여사울 공소



[그림 17] 여사울 입구의 각종 조각

■ 성거산성지

- 성거산 순교 성지는 천안시 북면 남안리 성거산 상턱에 위치하고 있는데 두 곳의 순교자 묘소와 소학동 교우촌 유적지가 있음
- 성거산(聖居山)이란 지명의 유래는 태조 왕건이 산의 형태가 신비하여 지은 이름이며, 과거 교우들이 거룩하게 살던 산으로 순교자 묘소에는 제1묘역 38기, 제2묘역 36기의 순교자 및 교우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음
- 박해가 끝난 뒤 선교사들은 다시 성거산 골짜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신자들을 찾았으며, 특히 두세(Doucet, 丁) 신부는 서덜곶에 여름 휴식처를 두었으며, 베르모렐(Vermorel, 張) 신부도 한때 이곳에 거처하였음
- 1900년 1월 8일 제8대 조선교구장 뫼텔 주교는 이 지역을 순방하고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일기에 자세히 기록하였음
- 이곳 순교자의 무덤과 교우촌 신자들의 줄무덤이 사적지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임
- 그 동안 천안시 입장성당에서 관리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성지에 전임 신부가 상주하며 미사가 봉헌됨



[그림 18] 성거산 성지

② 개발 방향

- 실내악, 만들어진 연주회 등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 체험에 기여
- 지역주민에게 문화체험의 기회 기여

③ 개발구상

- 실제로 신자들이 새롭게 신앙의 견고함을 더해주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상품 개발
- 비신자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고품위 문화의 수혜와 정신적 휴식처를 제공하는 범종교적인 기능과 위상을 고려한 상품 개발

④ 사업 내용

① 합덕성당

■ 합덕성당 브랜드화

- 성당 건축물의 원형 유지(외형 뿐 아니라 전통 진례를 전승하는 기능)
- 교구청 차원 홍보책자 간행(캘린더, 화보집 발간)

■ 합덕 교회 문서 및 사진 전시관 설립

- 성당, 지역 관련 고문서 및 사진 등 기록물의 수집 전시

■ 농촌체험장 조성

- 7천여 평에 달하는 성당 부지활용
- 청소년 미니농장(정원) 분양(봄, 여름, 가을에 걸쳐 수시 방문)
- 열린 동물농장(가축의 방목장 조성)
- 합덕제 복원(수생 생물, 합덕제와 관련한 지역민 참여 이벤트 정례화)

■ 내포지역 가족형 성지순례 숙박 거점화

- 합덕유스호스텔 중심 청소년과 가족형 성지순례 코스의 숙박 거점화



[그림 19] 합덕성당 입구 및 내부

② 청양 줄무덤성지

■ 심신(의지)단련 프로그램

- 청양 줄무덤성지의 위치가 산중인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지 순례 코스로 ‘정신의 휴양+산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③ 여사울

■ 교우촌을 활용한 지역 이벤트

- 주민의 80%가 교우이기 때문에 마을 전체를 활용한 이벤트
- 성탄절 시즌에 방문하기 좋은 마을, 주말에 운영되는 내포음식문화 제공으로 내포지역 성지 순례객들의 먹거리 코스로 입지화

■ 근대 내포지역의 이미지 재현

- 마을에서 중심이 되고 실제 활용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근대 이미지로 조성 삼남과 서울이 이어지는 관문으로서의 여사울의 번성된 이미지 재현사업 추진

④ 성거산 성지

■ 자연과 야생화를 테마로 하는 성지공원

- 기존의 야생화 전시와 야생화 분재 나누기 행사(나눔의 미학 실천)
- 아로마, 오감테라피 등 야생화의 향취를 활용한 심신치유 프로그램
- 야생화차, 화전 등 꽃 관련 특색 음식 개발



[그림 20] 순교자 성지 안내도

■ 성물 만들기 체험

- 교우촌 장소를 활용한 토기, 목각 등을 이용한 성물 직접 만들기



[그림 21] 암석을 활용한 다양한 성물제작

- 성거산 주변의 교우촌 설립 현황
 - ① 서덕골 교우촌(1884년, 두세 신부): 목천면 송출리
 - ② 벽방이 교우촌(1884년, 두세 신부)공소 신자수가 128명: 목천면 석천리
 - ③ 소학골 교우촌(1888년, 두세 신부)공소 신자수 114명: 북면 남안리
 - ④ 매일골 교우촌(1895년, 퀴틀리에 신부): 목천면 송출리
 - ⑤ 사리목 교우촌(1901년, 드비즈 신부)
 - ⑥ 석천리 교우촌(1913년, 공 베드로 신부) 112명: 목천면 석천리
 - ⑦ 도촌 교우촌(1919년, 공 베드로 신부) 110명: 북면 남안리
 - ⑧ 남안리 교우촌(1920년, 공 베드로 신부) 51명

⑤ 사업 내역

<표 9> 성지순례 및 문화·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 내역

구분	규모	내용
합계		
합덕성당	400㎡	• 농장체험장 조성(부지활용, 사육장)
	60㎡	• 문서 및 사진 자료관
	1식	• 홍보책자 발간
청양 줄무덤 성지	120㎡	• 심신단련 교육장 및 주변 코스 조성
여사울	1식	• 마을 이미지 재현
	1식	• 내포음식 재현 (먹거리 장소 조성 및 홍보)
성거산 성지	50㎡	• 성물만들기 체험장 (교육장 및 설비)
		• 자연체험 프로그램

⑥ 사업추진계획

① 투자 및 자원조달계획

- 구체적인 투자사업비는 공공사업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원으로 투자하여 추진
- 기존의 안내 및 편의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관광객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설마련

② 사업추진주체

- 사업추진 주체는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모든 시설의 조성 규모와 디자인은 지역주민 및 교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
- 충청남도는 관련 사업 추진에서 기반시설의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의 주체가 되고,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주민 및 교단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

③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사업은 기본계획 및 용지매입과 기반시설 공사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2~3단계 사업은 체험장, 자료관, 교육장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시범운영
- 정부기관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지원과 안내물 배포 추진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홍보대상별 적합한 홍보방안 추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

<표 10> 성지순례 및 문화·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추진단계

구 분	주요시설	추진방향
1단계	기본계획 및 용지확보	• 기본계획, 용지확보, 기반시설공사를 추진
2단계	체험장, 자료관 및 교육장 등 조성	• 기반시설 및 운영시설 조성 • 농장 체험장 조성, 문서 및 사진자료관 조성, 심신 단련장 조성, 성물체험장 조성, 답사코스 개발 및 운영
3단계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기타 편의시설 정비 및 운영 • 먹거리 개선 및 코스 개발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

(4) 주요 성지별 연계관광코스 개발

① 솔뫼성지, 합덕성당 (당진지역) 성지관광코스

■ 방향

- 수도권에서 진입시 충청남도의 첫 관문인 당진군 지역의 지역자원이 결합된 일반인 대상의 코스화
-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솔뫼성지의 성지로서의 비중과 대규모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여 인근지역의 신앙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던 합덕성당을 중심으로 문화관련 장소, 농촌체험 장소의 조합으로 균형있고 중량감 있는 내포성지의 센터화

■ 코스설정

<표 11> 솔뫼성지·합덕성당 지구 성지관광코스 1일 일정 A(예시)

일정	시간	내용	비고
당일	10:00	송악IC	함상공원에서의 점심식사 후 삼교천 주변의 아름다운
	10:20	필경사	풍경과 철새를 구경하고 솔뫼성지를
	11:00	함상공원	돌아본 후 검은들 마을체험과 왜목마을 석양을 보는 코스
	12:00	중식/삼교관광단지	
	13:00	솔뫼성지	
	14:00	합덕성당	
	14:40	순성 검은들마을	
	17:00	왜목마을 석양	
	18:00	송악IC	

<표 12> 솔뫼성지·합덕성당 지구 성지관광코스 1일 일정 B(예시)

일정	시간	내용	비고
당일	10:00	송악IC	솔뫼성지 방문 후 황토체험과 바닷가 산책, 그리고 아름다운 섬 도비도를 돌아보는 코스
	10:30	솔뫼성지	
	12:00	중식/고대 황토마을	
	13:20	고대 황토마을	
	16:00	도비도	
	17:00	왜목마을	
	18:00	송악IC	

<표 13> 솔뫼성지·합덕성당 지구 성지별 성지관광코스 1박2일 일정(예시)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일	10:00	송악IC	솔뫼성지방문 후 필경사, 성구미, 석문방조제, 왜목마을 일몰 감상 후 숙박을 하는 코스
	10:30	솔뫼성지	
	12:00	중식/함상공원(13:00)	
	14:00	필경사	
	15:00	성구미 포구	
	16:00	석문방조제	
	17:00	왜목마을 석양(숙박)	
2일	07:00	왜목마을 아침(해돋이)	왜목마을 해돋이 후 합덕성당 방문과 도미도 갯벌체험, 고대 황토농촌체험마을 돌아보는 코스
	09:00	합덕성당	
	10:00	도비도(갯벌체험, 해수탕)	
	12:00	중식	
	13:20	고대 황토마을(농촌체험)	
	17:00	당진IC	

② 해미성지·홍주읍성 관광코스

■ 방향

- 충청남도의 신도청소재지로 발전하고 있는 홍성과 서해안 관방요새인 해미지역으로 불교 및 역사 문화재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서해안 특유의 음식 등 관광자원이 풍부함
- 홍주읍성 및 관아는 비교적 잘 보존된 문화재이며 해미읍성 또한 보존이 양호하며 해미읍성 축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지역 지명도가 높은 편임, 또한 해미는 주민 종교 분포가 높아 천주교 관련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임

■ 코스설정

<표 14> 해미성지 성지관광코스 1일 일정 A(예시)

일정	시간	내용	비고
당일	10:00	서산IC	서산마애삼존불 또는 정순왕후 생가를 구경하고 해미읍성/해미성지를 방문한 후 오학리별마을을 보는 코스
	11:00	서산마애삼존불/정순왕후 생가	
	12:00	중식	
	13:00	해미읍성/해미성지	
	15:00	오학리별마을	
	16:30	해미IC	

<표 15> 홍주읍성 성지관광코스 1일 일정 B(예시)

일정	시간	내용	비고
당일	10:00	홍성IC	김좌진생가/한용운생가를 돌아보고, 홍주읍성의 성지를 방문한 후 거북이농촌체험마을을 보는 코스
	11:00	김좌진생가/한용운생가	
	12:00	중식	
	13:30	홍주읍성	
	17:00	거북이마을	
	18:00	송악IC	

<표 16> 해미성지·홍주읍성 성지관광코스 1박2일 일정(예시)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일	10:00	서산IC	서산마애삼존불 또는 정순왕후 생가를 구경하고 해미읍성/해미성지를 방문한 후 간월도를 구경하고 오학리 별마에서 숙박하는 코스
	10:30	서산마애삼존불/정순왕후 생가	
	12:00	중식	
	14:00	해미읍성/해미성지	
	15:00	간월도	
	16:00	오학리별마을(체험/숙박)	
2일	09:00	한국건축박물관/수덕사	한국고건축박물관/수덕사와 김좌진생가/한용운생가를 돌아보고, 홍주읍성의 성지를 방문한 후 거북이농촌체험마을을 보는 코스
	10:00	김좌진생가/한용운생가	
	12:00	중식	
	12:00	홍주읍성	
	13:20	거북이마을	
	17:00	송악IC	

③ 충남의 주요 성지별 관광코스

■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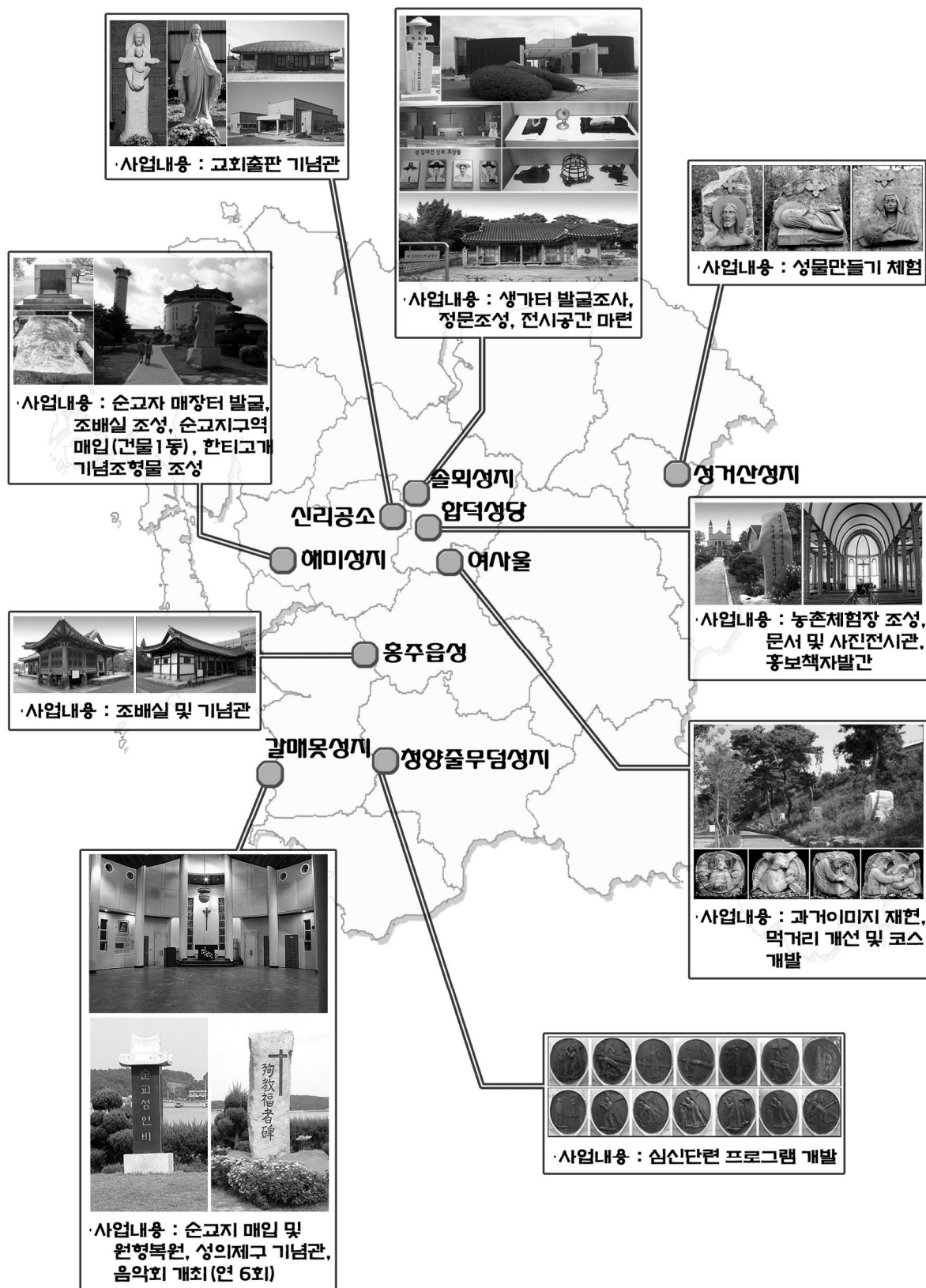
- 충청남도는 내포지역을 중심으로 외래문화가 유입된 지역으로 특히 천주교와 관련한 역사 문화재가 다양하게 입지하고 있어 각 지역별로 성지관광코스 관광상품화가 가능함.
- 당진·예산은 공세리성당과 솔피성지, 함덕성당, 신리공소와 여사울 등의 성지관광코스 와 예산의 사과따기 등 농촌체험관광과 덕산온천 및 저녁·숙박을 하는 관광코스임.
- 서산·홍성은 해미읍성과 여섯굴, 홍주읍성, 갈매못 등의 성지관광코스과 서산 생강캐기와 한과만들기 체험, 광천토굴새우젓 생산·판매지 방문 후 보령에서 저녁·숙박을 하는 관광코스임.
- 천안·공주·청양은 다락골성지와 수리치골, 황새바위와 성거산성지 등 성지관광코스과

아산의 와우리황토염색 체험 후 귀가하는 관광코스임.

■ 코스설정

<표 17> 충남의 주요 성지별 관광코스 2박 3일 일정(예시)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일	08:30 11:00 12:00	서울출발 당진IC 도착 - 공세리성당 중식 솔weiß성지, 합덕성당 방문 신리공소, 여사울 방문 예산 사과수확 체험 등 덕산 온천, 저녁 -숙박	시기별 체험 활동과 지역축제 참가
2일	08:00 12:00	조식 해미 읍성, 여숫골 중식 서산 생강캐기, 한과만들기 체험 홍주 읍성 방문 -광천 토굴새우젓 갈매곶 방문 -보령 저녁 및 숙박	시기별 체험 활동과 지역축제 참가 겨울철 철새도래지 탐방
3일	08:00 12:00	조식 다락골 성지 - 수리치골 방문 중식 황새바위 - 성거산성지 아산시 영인면 와우리 황토염색체험 서울귀가	시기별 체험 활동과 지역축제 참가



[그림 22] 천주교 성지 관광자원화 구상도